

기독교적 미학의 특징에 따른 서양 중세의 예배무용 분석

정보영* · 박순자**

I. 서론	무용 분석
II. 서양 중세사에서 본 기독교적 미학 형성의 배경 및 특징	V. 결론
III. 서양 중세의 예배무용과 특징	참고문헌
IV. 중세 기독교적 미학의 관점에서 본 예배	Abstract

I. 서론

“지카 바이러스가 한국에도 상륙했다. 감염에 의한 신생아의 소두증(小頭症) 유발 가능성이 제기된 만큼 국민의 불안감이 날로 커지고 있다.”¹⁾

상기의 기사에서 언급한 ‘지카 바이러스’를 비롯하여 2015년 대한민국을 혼란에 빠뜨린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와 같은 질병의 역사는 인류사가 기록되기 전부터 존재하여 계속 되풀이되고 있다. 질병의 역사에서 가장 큰 타격이 발생한 시대는 유럽의 중세 시대라 흔히 말한다.

“중세 시대는 유럽 역사에서 게르만 민족의 대이동부터 (5세기경) 동로마제국의 멸망(15세기 중엽)까지의 약 1000년간을 가리킨다.”²⁾ 중세 초기(4~5세기) 유행한 역병으로 로마가 멸망하고, 중세 후기(14세기) 발병한 ‘흑사병’으로 7500만 명의 사망했다.

중세시대의 시작과 끝은 질병이었으며 중세인들에게 전염병은 곧 죽음이었다. 긴 전쟁과 굶주림은 중세인들의 삶을 더욱 힘들게 만들었지만 ‘영원한 평화’라는 기독교(크리스트교)의 진리와 부활의 상징인 예수로 인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줄일 수 있었고 내일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예수를 믿는 것은 죽음이 인생의 끝이 아닌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이라는 기대였으며 하나님 곁에서 안식과 평화를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이는 나라를 지배하는 왕족이나 귀족, 성직자, 기사, 시민 등 모든 이들에게 통용되었으며 통치자들은 종교라는 전략과 “예수”라는 중심인물을 통하여 혼란한 정국과 불안한 국민

* 숙명여자 대학교 박사과정, jinandby@hanmail.net

** 교신저자, 숙명여자대학교 교수, soonja@sookmyung.ac.kr

1) 황효진, “[Bio의학] 지카 바이러스, 수혈로도 감염된다는데... 효과적인 예방책은?”, 2016.3.30., 동아일보.
(<http://news.donga.com/3/all/20160329/77267647/1>, 2017. 3. 30).

2) 박희진, 태혜신(2011), 무용 사회학 관점에서 본 중세 시대 무용예술의 의미, 『한국무용 학회지』11(2), p.26.

들을 규합하려 하였다. 이에 중세시대의 대다수 예술은 기독교적 철학을 바탕으로 신의 섭리를 통한 형상 표현을 추구했으며 근원적 형상과 초월적 내세를 지향하였다.

무용 역시 기독교적 철학 아래 인간의 몸으로 표현하는 단순한 움직임과 대형을 통하여 내세적 의미를 부여한 예배무용을 추구하였으며 이러한 무용만이 교회에서 인정을 받았다. 중세 시대의 “무용은 예배를 위하여, 성도 간의 교제를 위하여, 선교를 위하여 사용되었으며, 교회 내에서의 무용은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자들의 포교를 위한 수단이자 예배로 나아가기 위한 수단이었으며”³⁾ 이는 “내세의 완벽한 것들과 보다 긴밀한 교감 속에서 예배식의 거행이 확립되기”⁴⁾ 위한 기능을 수행하였다.

그러나 무용은 인간의 다양한 정서와 감정을 신체 움직임을 통하여 자유롭게 표현하는 것이다. 따라서 기독교의 ‘내세’라는 교리 안에서 자유로운 감정 표현을 자제하기 위해 많은 어려움과 절제가 필요했으나 귀족들과 농민들은 은밀한 향락의 수단으로 무용을 지속하였다.

결국 중세시대는 국가적으로 교회 속에서 이루어지는 무용을 제외한 대다수의 무용이 금지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으나 중세 시대 애매모호한 교회의 입장 속에 공식적으로 명맥을 유지 할 수 있었던 ‘예배무용’은 1000년이라는 긴 시간 속에서 미약한 인간들이 끊임없이 신에게 기원하는 노력의 ‘산물’이었으며 현세를 살아가는 인간들이 내세를 초월하여 신과 연결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었다.

몸으로 드리는 기도의 형태로 표출되었던 예배무용을 중세사의 사회적 배경과 교회의 입장, 그리고 중세 기독교 신학의 미학적 특징인 기호학적(記號學的), 내세적(來世的) 현상을 토대로 그 의미를 재발견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며, 중세사 및 무용예술에 관련된 단행본, 학술자료를 통하여 분석한 문헌 연구이다.

그동안 무용학 분야에서는 중세사의 시대적 배경과 사회현상을 통하여 중세 무용의 특성을 분석하거나, 무용형태에 따라 종류를 분석한 선행연구들이 주로 이루어져 왔다.

본 연구 또한 중세사의 사회현상을 통하여 중세 예배무용을 분석하였으나 중세사의 기독교적 철학을 바탕으로 나타난 미학적 특징을 통하여 중세 예배무용을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앞 선 연구들과 차별점을 가진다.

II. 서양 중세사에서 본 기독교적 미학 형성의 배경 및 특징

1. 중세 기독교적 미학의 형성 배경

AD 410년 게르만족의 일파인 서고트족(Visigoth)이 서 로마제국(Western Roman Empire)을 침략하면서 화려했던 고대 그리스 문화의 상징인 로마가 붕괴되었고, 인간의 삶은 과거 로마의 영광에서 퇴화하기 시작하였다. AD 4세기에 다양한 서구민족의 싸움과 천연두·홍역과 같은 전염병이 유럽에 퍼지는 사이 침략에서 승리한 야만족과 수도사, 성인들에 의하여 단일국가들이 세워졌으며 국가를 세웠던 이들은 침략에만 관심을 두지 않았다. “로마에서는 이미 서기 313년 기독교를 공식적인 종교로 인정한

3) 김수진, 박순자(2015), 중세 시대의 무용현상을 통한 무용의 발전방향 모색, 『기독교 학문 연구회』 20, p.9.

4) D. Georges (1999), 『중세의 예술과 사회』, 김웅권(역)(서울: 東文選, 2005), p.9.

이래 교회는 상층 계층의 많은 사람들과 여성들을 새로운 신도들로 흡수하여 그 조직적 기반이 확충⁵⁾된 상태였다.

야만족들은 영토를 넓혀 나라를 세우는 것만이 아닌 미개한 자신들의 문화를 로마의 수준으로 격상하고 그들과 통합하겠다는 욕망을 실현하기 위해서 기독교도가 되었는데⁶⁾ 중세사 그리스도 국가의 모체(母體)라 할 수 있는 프랑크왕국의 초대 왕 클로비스(Clovis :465(?)~511)도 전쟁을 통하여 얻은 영토(갈라디아 옛 로마제국)의 시민들을 기독교와 예수로 규합하려 하였다. 기독교는 전쟁과 질병으로 인하여 죽음의 그림자에 휩싸인 시민들을 선동하기 위한 고도의 정치적 ‘전략’이었으나 무력에서 이어진 종교라는 전략에서는 또 다른 어려움이 나타났다. 중세 시대에는 수도사와 성직자만이 교육을 받았던 유일한 계급이기 때문에 그들이 일반시민들을 라틴어 성경으로 포교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또한 전염병을 막기 위해 교역을 중지하고 개인의 이동을 금지함에 따라 시민들은 고립될 수밖에 없어 기독교를 종교로 믿으면서 미신과 같은 초자연 현상을 숭배하는 시민들의 이중성이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을 보며 “교황 그레고리우스 1세(Gregorius I: 540?~604.3.13)는 교양 있는 자들이 텍스트를 통해 배우는 것을 읽을 줄 모르는 사람들은 이미지를 통해 배워야 한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⁷⁾

이에 따라 중세시대는 예술 활동을 신의 말씀을 전하는 수단으로 생각하여 철저히 기독교적 사상을 기반으로 제작하였다.

예술은 글을 모르는 시민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었으며 예술은 독자적인 의의보다 성서의 내용을 풀어 설명하는데 목적이 있었다.⁸⁾ 중세 시대는 아직 예술이라는 학문적 개념이 들어서기 전이었으므로 현재 우리가 ‘예술가’라 부르는 직업은 기술을 펼치는 장인이었기 때문에 귀족, 수도사와 성직자들의 의뢰를 통하여 음악, 미술, 건축물 등이 제작되었다. 이들은 작품을 의뢰할 때 기독교적 철학 아래 신의 섭리를 내포한 형상의 표현을 요구하였고 “중세 시대는 규칙에 따라 어떤 것을 만드는 능력이라고 하는 오래된 예술의 정의를 고수⁹⁾”하였으며 당시의 창작행위는 말씀 전파의 목적 안에서 신의 섭리에 따른 근원과 근본 그리고 초월적 내세를 지향하였다.

그리하여 대다수 중세시대의 창작물은 기호학적 묘사와 존재하는 모든 것에 의미를 두는 초월적 내세를 지향하였고 기독교 철학 안에서 근원과 근본을 토대로 제작되었다.

2. 중세 기독교적 미학의 특징

이탈리아 철학자 움베르토 에코는(Umberto Eco) 중세인 들이 아름다움을 규정하는 방식으로 비례의 미학, 빛의 미학, 마지막으로 유기체의 미학이라는 세 가지의 영역으로 나누었다.¹⁰⁾

기독교적 철학에 있어 현세(現世)는 스쳐 지나가는 곳이기 때문에 자신들이 살고 있는 현세의 모습을 그대로 묘사하고 표현하는 것에는 의미가 없었으며 예술을 제작하는 장인들도 창작 보다는 기본적인 고단순한 작업에 집중하였다. 특히 고대 그리스 예술에서 나타난 이상적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비례적 형

5) 조찬래(2006), 중세시기 교황절대주의(papal absolutism) 관념에 관한 연구, 『사회과학연구』 26, p.447.

6) D. Georges 1999), p.17.

7) Ibid., p.20.

8) 진중권(2014), 『미학오디세이 I』 (서울: ㈜휴머니스트 출판그룹), p.150.

9) W. 타타르키비츠(1970), 『미학사 2』, 손효주(역)(서울: 미술문화, 2006), p.503.

10) 이택광(2008), 『중세의 가을에서 거닐다』 (파주: 아트북스), p.17.

상은 인간을 타락하게 만드는 것이라 여겼으며 내세에 존재하는 신이 창조한 근원과 근본만이 진정한 가치라 여겼다. 고대 그리스의 미적 비례의 기준은 ‘상기설(想起說)¹¹⁾에 입각해 현세의 불완전함을 예술을 통하여 모방하고 현세에서 그 완전함을 보여주는 것이 미의 진리였으며 고대 그리스 신상들은 좌우 대칭이 완벽하게 계산된 아름다움을 보여준다. 미모의 얼굴, 8등신의 신체비율을 사랑하는 조각들과 회화는 현세에 존재하지 않는 이데아의 형상을 시각적으로 볼 수 있는 형태로 만들었다. 하지만 중세의 미적 비례기준은 ‘유출설(流出說)¹²⁾에 입각하여 흘러오는 빛을 통해 현세를 정화하여만 내세에 가까워질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현세의 아름다움에는 의미가 없었다. 이에 따라 인간을 묘사할 때 원형이거나 작긴 큰 얼굴, 짧은 팔과 다리, 5등신의 신체 비율의 형상을 표현하였다. 또한 완벽한 균형이 잡힌 형상을 제작하여 신격화하는 것을 이상승배라 여겼다.

이러한 비례적 개념의 상반된 인식 아래 중세시대의 창작은 형상의 표현에 있어 관찰의 필요성이 배제되었고 장인들에 의하여 동일한 제작방법으로 단순하고 기호학적 표현으로 나타나게 된다. 이러한 기본적인 단순화된 작업은 자연의 생동감 있는 모습을 직접적으로 분석하는 것과는 거리가 있어 장인들은 대상의 관찰과 분석보다 기호학적 구체화를 통한 제작을 하였고 이는 소극적이며 제작적인 비례의 모습을 보였다. 당시의 예술 활동은 “고대 그리스의 수학과 기독교의 지복직관¹³⁾이념에 뿌리를 두며, 신이 우주를 창조할 때 균형과 조화를 염두에 두었기 때문에 이를 구현하는¹⁴⁾ 것으로 ‘비례의 미학’을 형성하려 하였다. 이에 따라 예술이 표현하고자 한 것은 현세의 대상 그 자체가 아닌, 현세에 대한 중세인들의 이상화된 바람직한 형상, 즉 감정적으로 윤색되고 변형된 기호학적이며 이상적인 이미지였으며¹⁵⁾ 진정한 아름다움은 현실의 묘사가 아닌 신의 섭리에 의한 초월적 세계에서만 존재한다고 믿었다.

모세의 십계명 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출 20:4-5)”는 말씀과 같이 중세의 예술은 과거 그리스의 비례적 형상의 완벽에서 나오는 미를 이상화해서는 안 되었다. 당시의 지식인 “베르나르”(Bernard de Clairvaux 1090~1153)는 회화, 즉 그림 속에서는 성경 말씀과 성인들을 그려내는 것이 가능할지라도 석고, 목재, 금속 등을 통하여 형상화하는 것은 터무니없으며 어떠한 부조 물도 안 된다.”¹⁶⁾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장인들은 건축물 이외의 모든 형상들을 제작하는데 실물 묘사에는 의미가 없었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제작 과정에 있어 측정과 관찰의 필요성이 줄어들었고, 기호학적이고 단순 구체화된 제작적인 비례 묘사가 나타났다. 대다수의 장인들은 현세의 표현을 도형화로 출발하여, 구체화시키는 작업방식을 구사하였으며 이는 비

11) 플라톤의 진리 인식에 대한 학설. 그에 의하면 진리는 사고에 의해 이해되어지는 것이 아니며, 우리의 영혼이 지상의 생활을 하기 전에 자유로운 영혼에 주어져 있으며, 그것이 지상 생활에서의 감상에 의해 감추어지게 되었을 뿐이고, 따라서 우리는 유사한 것을 통한 연상을 이용하며 이미 주어진 진리를 상기(그리스어 anamnesis)할 뿐이라는 설이다. 한국철학사상연구회(1989), 『철학대사전』 (서울: 도서출판 동녘), p.654.

12) 유출 대신 분출, 발출이라고 번역되기도 한다. 샘이 솟아올라 흐른다(emanare), 라는 라틴어에서 온 말로서 세계가 본원적인 '하나'에서 출발하여 차례로 완전성이나 실재성이 적은 하급의 존재로 흘러내린다고 하는 의미다. 완전·절대의 실재인 '일자(一者)'는 이러한 유출에 의해 조금도 변하지 않는다. 이 유출설은 창조는 무에서부터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라는 의미를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앞의 책, p.971.

13) 지복직관[至福直觀] 하나님을 직접 보는 것, 이것이 천국의 행복한 상태이다. 교회의 정의에 의하면 의인의 영혼은 “하나님의 본성을 직접 얼굴을 맞대고 본다. 그 결과 신의 본질은 어떤 피조물을 통해 간접적으로가 아니라 직접, 있는 그대로, 명확히 숨길 없이 알려진다.

14) 진중권(2014), p.18.

15) 川野洋(1992), 『예술·기호·정보』, 진중권(역)(서울: 중원문화, 2010), p.82.

16) D. Georges(1999), p.52.

례관계가 없는 아름다움을 보여주었다. 당연히 인간이 만든 형상이 신학적 기능보다 미와 쾌락의 기능이 우세하는 것은 불가하였고 단순한 조각품이라도 기독교적 의미가 명확하거나 성인들의 성물만이 그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할 수 있었으며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모든 형상에 내재된 각각의 빛과, 그 안에 의미를 발견하여 모든 사물의 바탕에는 각각의 빛이 존재한다고 믿었다.

이러한 빛의 결과는 결국 초월의 내세라는 공통의 목적을 지녔다. 글을 모르는 시민들이 교회에서 접하는 경이적이며 원색의 화려한 회화와 스테인드글라스의 몽환적인 빛은 마치 자신이 성서 안에 성인이 되는 듯 착각을 불러일으키게 만들었으며 현세에서 감각으로 느끼는 내세적 초월의 미를 경험하게 만들어 주었다. 중세가 기독교 문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졌음을 인식할 때 ‘빛’은 초월적 세계를 상징하기 위한 수단이었으며 빛은 인간이라는 존재가 살아있는 감각을 통하여 현세에서 신을 경험해 볼 수 있는 가장 좋은 매개였다. 중세 고딕 양식의 대표로 꼽히는 프랑스 샤르트르에 있는 ‘성모마리아 대성당 (Chartres Cathedral)’ 이나 노트르담 성당의 스테인드글라스를 생각해 보자. 중세 시대 건축된 성당의 대다수에 벽을 장식하던 스테인드글라스는 ‘4D’라는 기술을 통하여 사차원세계를 손쉽게 접하는 현대인을 무색하게 할 정도로 웅장하면서도 몽환적인 빛을 선사하는데 몽환적인 색채에 들어오는 원색의 강렬함은 과거의 인간들에게는 더욱더 큰 빛의 영적 파장과 장엄미를 보여주었을 것이며, 성경의 교리와 신이 자신을 돌보아 주고 있다는 카타르시스를 선사하였을 것이다. 중세 초기 성직자로 중세신학에 큰 영향을 미친 신플라톤주의 미학자 디오니시오스(Pseudo-Dionysius the Areopagite)는 3세기 플로티노스의 유출 개념을 이어받아 “절대 미가 빛을 방사하고 유출시켜서 거기서부터 지상의 미가 생겨난다.” 라고 주장하였는데¹⁷⁾ 이로 인해 중세 예술의 가장 주요한 과업이었던 ‘초월의 진리’를 표현하는데 빛과 색의 조화는 인간의 내면을 어루만지며 성경의 교리를 교육과 설명 없이도 빛이라는 자연 현상 하나로 가장 근본적인 아름다움을 나타낼 수 있었다.

이러한 형상은 빛과 기호, 비례라는 서로 상반되는 두 개념을 ‘신의 섭리’라는 이념 아래 통일하여 어떠한 상반됨도 조화를 이루어 하나로 나타나는 ‘유기체의 미학’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예술이 인간의 삶과 동일시되는 것처럼 그들에게는 예술이라는 개념 이전에 의식주, 그리고 문화의 모든 방면에 기호학의 구체화를 통한 비례적 미학과 색채와 빛을 통한 감각적 미학이 질서 정연하게 정리되어 나타났다. 내세와 구원이라는 소망의 공간을 인간은 기술을 사용하여 유비적(類比的) 확장을 이루었으며 기호라는 형상과 질료라는 내세가 결합 하여 신이 관여하는 형이상학의 존재로 나타나게 되면서 인간은 감정을 표출하고, 하나의 유기체로서 삶의 가치와 그 이상너머를 체험시켜 주는 역할을 하며 중세의 미학적 특징으로 완성되어 졌다. 이처럼 중세시대의 미학은 인문주의와 자연주의가 동시에 성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III. 서양 중세의 예배무용과 특징

중세 시대 문화의 배경이며 상징이 되었던 기독교(크리스트교)는 음악, 미술, 건축, 무용, 연극 등 모

17) 네이버 지식백과, < <http://terms.naver.com/>, 2017. 04. 17>.

든 분야에서 영향을 주었으며 궁극적인 목표인 교리를 전파하였다. “기독교 미학에서 미의 원천은 신이며, 예술은 도덕적 진실이 강조되었는데”¹⁸⁾ 특히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육체를 가지고 태어나 인간들의 죄를 대신하여 고난 받고 돌아가신 후, 다시 부활하셨다는 사실은 인간의 육체는 그들에게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생명을 가진 현세의 매개체라 할 수 있었다.

타 예술과 달리 배움이나 전수가 없이 인간들이 자신의 내면의 표현을 가장 쉽게 창조하여 표현할 수 있었던 것은 몸짓, 즉 ‘무용’이다. 그래서 “무용은 초기 기독교 예배에 포함되면서부터 종교적인 다양한 의식에 사용되고 신성한 종교의식의 필수적 요소였으며, 그 어느 때보다도 교회 안에서 형식을 갖추며 발달 했다.”¹⁹⁾ 하지만 ‘예수의 몸’이 하나님과 인간을 연결하는 매개였음에도 불구하고 “기독교 교리에서는 인간의 몸, 육신은 오히려 수치스럽고 타락하였기 때문에”²⁰⁾ 기독교 교리 안에서 육체의 고통으로 훈련되지 못한 인간들의 죄를 지은 몸을 가지고 추는 춤은 타락한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큰 성당과 수도원이 갖추어지지 않은 유럽의 작은 도시나 마을의 시민들은 전쟁과 전염병으로 고립된 생활을 하였기에 기독교의 믿음과 미신이라는 잘못된 신앙사상을 함께 가지고 있었으며 중세사가 시작되면서 새로운 국가들이 건설되어 기독교 교리 아래 도시와 마을들을 편입하려 했을지라도 아직 고대 그리스의 문화는 굳어지지 않고 남아있었다. “고대 그리스에서 무용은 신화적 제사의식에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였으며”²¹⁾ 인간들의 몸짓이 신만을 위한 표현이 아닌 자신들의 욕구를 표현하는 하나의 방법이라는 사실은 무용예술이 교회 안에서 이교도적이고 주술과 연관된 위험한 존재로 간주될 수밖에 없었다. 결국 무용은 그 행위가 점차 변질되면서 “539년 톨레도(Toledo) 협의회를 시작으로 기독교의 탄압과 제재가 시작되고 유럽 전역으로 무용 금지령이 확산되었으나”²²⁾ 로마서 12장 1절에서의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로마서 12:1)” 말씀과 같이 중세의 예배에서 인간의 몸을 통하여 드리는 제사, 즉 제의의 역할을 하는 ‘예배무용’만은 인정받을 수 있었다. 당시의 “교회 축일에는 성직자가 더 많은 춤에 참여하였고 그레고리안 성가에 맞춰 안무된 예배와, 교회 축제 속에서 행렬 사이 보이는 춤의 관습이 있었으며”,²³⁾ 900년경에 사용했던 파리 교회의 전례 예식 법에서는 “대성당 참사회 의원이 첫 번째 시편에 맞춰 춤을 출 것이다.”²⁴⁾와 같은 다양한 기록들은 교회 안에서 예배의 수단으로 무용예술을 적극적으로 수용되고 있었음을 알게 해준다.

1. 기호학적 관점에서 본 중세의 예배무용

중세 예술의 대표적 특징은 모든 표현을 기호학을 통하여 사물의 형태를 구체화시켜 제작했다는 것이다. 기호학은 수학의 한 분야로 고대 문명에서부터 발전되어 공간에 존재하는 도형, 모양, 대상, 위치, 치수 등을 계산하여 논리적으로 문제 해결을 찾으며 이러한 학문의 논리를 바탕으로 중세 예술은 점, 선, 면, 도형, 공간에서 나타나는 수적 비례를 통하여 안정감, 그리고 아름다움이 나타난다. 특히 기호

18) W. 타타르키비츠(1970), pp.516-517.

19) 박영애(2006), 중세 시대의 교회무용에 관한 연구, 『한국무용기록학회』 11, p.3.

20) 홍덕선, 박규현(2009), 『몸과 문화』 (서울: 성균관대학교출판부), p.227.

21) p. Germaine(1995), 『무용의 역사 I』, 양선희(역)(서울:삼신각), p.235.

22) 김수진, 박순자 (2015), p.9.

23) 박영애(2006), pp.5-6.

24) Ibid., p.6.

학이 종교의식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차지했다는 기록은 중세 예술의 바탕이었던 기독교가 교리 전파의 수단으로 기호학을 통한 예술의 기호를 마련하였음은 부정할 수 없다. 중세사 기독교 철학 및 신학에 큰 영향을 끼친 신플라톤주의 철학자 ‘프로클로스’(Proklos 410?~485)는 “기호학적 도형의 계열은 원에서 시작한다. 원은 하나의 선이지만 자기 회귀를 통해 자신을 한정 짓 선이며, 원을 이루는 곡선은 계속 뻗어나가는 직선과 달리 선이 한정돼 있다는 이유로 곡선은 직선보다 우위에 있다. 따라서 한정되어 있는 단일 곡선인 원이 최상의 도형이다.”²⁵⁾라고 밝혔다. 프로클로스는 고대 후기 그리스 시대를 살았던 철학자이며 기호학자로 당시의 지성인들은 기호학을 ‘거룩한 지혜’라고 불렀는데 그가 남긴 저서와 그의 이론은 중세 ‘부정신학’에 큰 영향을 주며 ‘토마스 아퀴나스(Thomas Aquinas, 1225?~1274, 3.7.)’와 같은 중세시대 지성인들에게 영향을 주었다. 당시의 불안정한 사회에서 도형이라는 완벽한 수적 형상은 신과 함께 불안정한 현세를 안정적인 내세의 의미로 구체화시켜 바꿀 수 있었으며 이러한 기호학의 구체화는 즉 내세를 나타낼 수 있는 상징의 개념으로서 예술화되었다.

인간이 기호를 사용한다는 의미는 인간이 언어를 사용한다는 것을 뜻한다. 언어의 가장 큰 기능은 의사소통이며 흔히 ‘무용예술’을 몸을 통한 인간들의 의사소통 ‘몸의 언어’라고 말한다. 중세사에서 무용이 탄압으로 쇠퇴하였음에도, 교회 안에서 “무용이 신을 섬기는 예배의 한 부분으로서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맥을 이어 올 수 있었던”²⁶⁾점은 무용이 몸의 언어라는 상징성을 가지고 움직임으로 만들어 내는 언어를 통하여 신의 교리를 소통하였기 때문이다. “기록에서 살펴보면 중세 시대 춤을 집도(執導)한 대부분이 주교와 성직자였으며, 그들은 교리 전파를 위하여 성서에서 나오는 움직임을 기준으로 동작을 구성하였다 전해진다. 성서에 기록된 무용 용어인 Cabab, Chagag, Chuwl, Giyl, Halak의 뜻이 빙빙 돌다, 나선형, 원형으로 돌다.”²⁷⁾와 같이 기호학적 움직임이 주가 되어 무용을 표현하였다는 점이 예배 무용 또한 미술, 건축과같이 기호학에 의존하여 집도되었음을 알 수 있다.

“어떤 것을 할 의도 없이 단지 쾌락을 위해 팔 동작을 한다고 생각해 보라. 그건 춤이 될 것이다. 춤에서 당신을 기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물어보라. 그러면 ‘수’는 이렇게 대답할 것이다. 자, 나 여기 있소.”²⁸⁾ (진중권, 2014, p. 136.)

대한민국의 평론가 진중권은 본인의 저서에서 중세사의 미학의 예로 ‘춤’을 제시하였는데, 그는 중세사에서 보이는 무용의 최종의 의미를 ‘수(數)’라고 이야기하였다. ‘수’는 기호학의 가장 기초적 지식이며 개념이다. 하지만 이 개념과 달리 인간이 흥에 취해 쾌락의 의미로 동작을 행하는 춤은 교회에서 인정하지 않았고 동작의 표현에 ‘수’를 통하여 안정적 비례가 완성되어 나타나는 형상만이 진정한 기쁨이며 몸의 언어로서 예배무용을 수행할 수 있었다. 그래서 중세사의 예배무용은 신의 섭리를 몸으로 교리 한다는 의미이며 신의 교리를 가장 완벽하게 전달할 수 있는 안무법인 기호학을 기초로 한 동작과 구성으로 움직임을 구체화시키는 작업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작업에서 나타난 기호학적 안무 형태를 중세 예배무

25) 송유래, “기호학으로 드러낸 기독교 황제의 절대적 神觀,” 2013, 4, 신동아, <<http://shindonga.donga.com/3/all/13/111948/2>, 2017, 6, 18>.

26) 박희진 등(2011), p.30.

27) 이명주(2005), 기독교무용에 나타난 『죽음의 춤』 과 도상해석학을 통한 의미체계 연구, 세종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p.40.

28) 진중권(2014), p.136.

용을 분석한 선행연구에서 찾아 볼 수 있었다. 예배무용의 대형 구성에 있어 당시의 무용수들은 두 개의 사슬 모양을 만들거나, 십자가 또는 세 개의 방향으로 서는 모습을 선보였으며 두 개의 S모양인 칼라도(calado de deux S)형태로 정현곡선을 이룬 행렬이 많이 사용되는 형태를 보여주었다는 기록은 교회가 흡수한 선(line)을 통해서 예배의식을 위한 안무가 주로 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29)

2012년 『기독교 무용에 나타난 『죽음의 춤』 과 도상해석학을 통한 의미 체계 연구』에서도 30) 중세사에서 나타난 11가지의 예배무용 중에서 9가지의 무용이 원형과 나선형이라는 도형의 구도로 이루어졌음을 밝히고 있으며 이를 통해 중세사의 예배무용이 기호학을 근거로 안무되어졌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또한, 11가지의 무용이 모두 ‘행렬화’ 되었다고 밝히고 있는데 이는 몸을 움직이면서 도형의 각도를 유지하기 위해 가장 긍정적인 안무 형식인 행렬을 통하여 스텝을 해야만 각도의 비례가 무너지지 않고 균형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예배무용에서 원과 나선형 같은 곡선의 구도로 움직임의 재현하였다는 점은 정확한 비례를 나타낼 수 있었고 이는 신이 가져야 할 완벽한 아름다움을 나타내는데 가장 최상의 조건이었다. 그래서 기호학을 통한 예배무용은 “피조물에서 가지는 이중적 결합 즉 가변적이고 부분적이라는 결합을 보완하는 명확성을 지닐 수 있었다.”31)

태초의 근원과 근본을 추구하였던 기독교 사상에서 내세가 아닌 현세를 살고 있는 인간 형상의 불완전한 함은 내세적 미의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불완전한 신체가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완벽한 움직임을 무용으로 재현하기 위해서는 동작과 구도가 기호학을 통하여 단순화될 수밖에 없었다.

인간 신체의 불완전함을 기호학으로 보완하여 집도(執導)한 예배무용의 안정된 비례만이 불완전한 인간의 신체를 궁극적인 내세적 미에 도달하여 완성할 수 있는 최상의 방법이었다.

2. 내세적 관점에서 본 중세의 예배무용

중세사에서 말하는 기독교 철학은 초월의 빛의 결과이며, 이 모든 결과에는 신의 섭리가 깔려있다고 말한다. 그들이 빛과 신의 섭리에 집착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들의 생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을 내세에서의 영원한 생명으로 믿었으며 그들에게 죽음은 삶의 종말이 아닌 일부분이었기 때문에 일생의 가장 큰 소망은 현세의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곁에서 평안을 취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수도원에서 생활하는 성직자들을 제외한 일반 시민들에게는 금욕과 절제, 타락의 유혹을 이기기에는 인간의 욕심과 본능을 억제한 고통의 훈련이 불가피하였으며, 이들은 종교에서 회개하고 면죄부를 받는 것으로 내세의 안식을 위하여 노력하였다. 신의 찬양이 더 높아질수록 교회의 권력도 함께 치솟았으며, 결국 중세 후기 교회의 부패와 이단적 신앙의 양상도 함께 나타났다. 성직자들의 권력은 신의 섭리를 떠나 악의적 행위로 나타났으나 약탈, 살인과 같은 악의 또한 성직자라는 권한 아래 성스러움으로 포장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모습은 신의 뜻이라는 이유로 포장되어 교회를 더욱 사치스럽게 하였다.

성직자들은 신과 소통할 수 있는 매개였던 빛과 색채로 교회를 건축하기 위하여 가장 화려하고 좋은 재료를 사용하고자 했으며 초월을 드러내는 법으로 금보다 비싼 울트라 마린과 같은 염료로 푸른빛의 몽환적인 현상을 만들고 금박은 물론, 각종 보석으로 치장하였고, 예배당의 크기는 수도사의 권력과 비

29) 이미영(2006), 9-13세기 이태리·프랑스와 고려 의식무용 양식 비교연구, 『무용예술학연구』 17, pp.171-172.

30) 이명주(2005), pp.7-53.

31) V. Richard(1999), 『신학적 미학』, 손호현(역)(서울: 한국신학연구소, 2001), p.217.

래되면서 금욕과 절제에 반대되는 이중성을 교회에서 행하고 있었다.

‘움베르토 에코(Umberto Eco, 1932~2016)’의 소설 ‘장미의 이름’을 영화화 한 『The Name Of The Rose』 (1986)³²⁾에서 주인공 ‘윌리엄’ 수사는 제자인 ‘아드 조’ 수사에게 이렇게 말한다. “영적 희열과 광기는 종이 한 장 차이다.” 주인공 윌리엄 수사는 기독교 이름 아래 행해지는 악행들을 신의 이름으로 합리화 시키는 수도승들의 잘못된 영적 교리에 대하여 지적하는데 ‘영적 희열과 광기’라는 표현은 중세 시대에 나타난 ‘무용’을 대하는 교회의 태도를 지적하는 말처럼 느껴진다. 무용이 중세사에서 교회의 탄압을 받았던 이유도 이러한 교회의 이중성 때문이다.

중세의 교리에는 모든 현상과 사물에는 각각의 내재된 내세의 의미가 있었으며 그 의미를 통하여 모두 초월적인 신의 섭리로 해석하려 하였기 때문에 인간이 즉흥적으로 추는 춤은 내세로서의 신의 진리를 부여함에 있어 문제가 있었다. 특히 그러한 인간의 움직임들이 선정적이거나 쾌락을 위한 움직임일 경우는 더욱 교회의 섭리에 반대되었다. 당시의 예술은 눈에 보이는 재료로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을 재현하는 것, 즉 하나님의 천국을 가시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었으므로 당시의 무용은 춤의 재료인 인간의 신체가 가진 내세적 의미를 즉흥적으로 표현하는 동작들로, 보이지 않는 세상을 현세에서 형상화된 재현이었다. 춤이 선정적이고 타락하였다면 내세에도 선정과 타락이 함께 존재한다는 뜻으로 해석되었으며 이는 무용을 더욱더 탄압하여 중지시킬 대상으로 인지할 수밖에 없었다.

“육체의 모든 욕망을 절제하라.(법전 2:11)”는 말씀처럼 무용은 ‘기독교와 미신에 의해서 추어지나 육체의 공포와 불안의 상징’³³⁾이었다는 점에서 중세에는 무용이 금지되고 탄압됐다. 하지만 두려움 없이는 신앙도 존재하지 못하는 것과 같이 육체의 죽음에 대한 공포의 행위를 나타낸 초월적 정신성이 규합된 움직임도 교회 내에서 함께 존재하였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무용을 금지시키는 무용의 원칙적 금지에는 무리가 따랐고, 현실적으로 무용이 차지하고 있는 중요한 비중 사이에서 교회는 궁지에 몰릴 수밖에 없었으며³⁴⁾ 이는 의미가 명확한 예배무용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양면성이 보였다. 타 예술과 달리 무용은 기술의 전수와 배움이 없어도 행위를 할 수 있으며, 시공간의 동시성을 가진 인간의 근본적 움직임이라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 지식이 짧은 시민들의 교리를 전파시키기에는 움직임은 가장 최적의 수단이었으며 “아름다움의 경험은 영혼을 하나님에게로 이끌고 사람들을 헌신에 굳게 서게 하는”³⁵⁾ 기능을 가지기도 하였기 때문에 “그레고리 교황에 의하여 무용이 탄압을 받았을 지라도, 예배 중 무용을 교묘히 사용하여 기독교인들로 하여금 신의 허락 하에 춤을 출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었다.”³⁶⁾

그 결과 사람들은 예배무용을 통해 간접적으로 하나님의 천국을 경험하였고 교회의 정의 안에서 찬양과 회개, 구원의 감정을 표출하며 내세라는 이상너머를 체험 할 수 있었다.

‘캐롤, 어린이 축제, 바보들의 춤’과 같은 축제에서 추어지던 무용을 제외하면 대다수 예배무용이 신을 찬양하고 회개하고, 죽음을 구원하고, 천국을 향한 순례, 질병의 치유 같은 희망적인 의미를 재현하였고 춤의 의미는 내세로 지향되어 있었다. “즉 중세시대의 무용은 그리스도의 성찬식에 포함되어야 하는 것으로서 세례를 통해 죄 된 삶으로부터 죽은 후 의로운 삶으로 부활하는 것을 나타내는 의식의 일부

32) A. Jean-Jacques(1986), *Le Nom De La Rose, The Name Of The Rose*, Warner Bros,(dvd,131 minutes)

33) 홍덕선 등(2009), p.277.

34) p.Germaine (1995), p.287.

35) V. Richard(1999), p.198.

36) p.Germaine (1995), p.289.

였다.”³⁷⁾

무용의 동작은 소극적이며 간단한 몸짓만이 주어졌다. “성호 굿기, 무릎 꿇기, 엎드리기”³⁸⁾ 등의 동작표현은 내적 정신 행위의 표현을 위하여 실현 되었고 중세시대의 무용은 육체의 절제를 통한 간단한 제스처만으로도 신과 내세를 향한 존경과 경배, 기원의 의미를 충분히 완성할 수 있었다.

이러한 의미는 인간의 육체를 통하여 비가시적인 세상을 가시적으로 느끼게 해줌으로써 ‘교황 그레고리 1세’의 이미지를 통한 교리 전파를 실현 할 수 있었으며 내세의 하나님과의 연결고리를 위하여 예배 무용으로 응집되었고, 가장 근원적이고 근본적일 수밖에 없는 세계를 몸으로 묘사하였다.

미약한 움직임이었으나 교회 안에서 인간들이 신에게 빛과 찬미를 기원하며 초월적 내세를 희망하는 함축적 의미가 예배무용으로 나타난 것이다.

IV. 중세 기독교적 미학의 관점에서 본 예배무용 분석

중세 예술은 모든 창작의 의미가 내세에만 집중되어 예술가의 창조성이 결여된 소극 주의적 성격이다.

중세시대 종교 안에서 그 명맥을 유지했던 예배무용도 화려한 기술을 구사하거나, 창작의 욕구, 인간 감정의 표현과는 거리가 멀어 중세 예배무용은 “종교적 말씀이나 일정 대상에 대한 경외심을 담은 그릇의 기능만을 나타내기 위하여”³⁹⁾ 무용다운 무용이라기보다 “제스처(gesture)와 동작의 전개, 이 두 형태에서만 종교무용”⁴⁰⁾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이에 따라 중세 시대의 대다수 예배무용은 원형과 행렬이라는 도형화에 입각한 구도를 통한 “집단무용 형태의 원무와 행렬무, 간소한 형태의 스텝만으로 구성되어”⁴¹⁾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으며 이는 예배무용의 안무와 움직임이 기호학적 관점을 통하여 제작되었음을 시사해준다.

거룩한 지혜였던 기호학에서 원이라는 최상의 도형이 가진 의미는 기독교 철학에 최상의 의미인 신의 섭리와 동일하였다. 그래서 예배무용의 궁극적 목적인 교리 전파와 신의 찬양을 위하여 완벽하지 못한 인간의 몸에 거룩한 기호학의 원리가 합쳐진다면 신의 섭리가 깔린 구성과 안무를 완성시킬 수 있었다.

이처럼 중세 예배무용은 형태보다는 관념, 예술적인 미보다는 도상의 내용이 중요시되고 이미지화되는 기독교적 성스러움을 위하여⁴²⁾ 주어졌다. 이는 당시 무용을 집도한 대다수가 성직자와 같은 종교인이었기 때문에 무용의 작품 배경과 각 안무 마다 종교를 필두로 한 부차적 의미를 제시하여 내세적 관점으로 이끌었으므로 사제의 집도로 신의 교리와, 내세의 초월적 정신이라는 과제를 무용으로 표현하는데 행렬로 신을 향한 순례를 재현할 수 있었고 이러한 예배 행위는 초월적 존재를 접촉하여 신앙으로 이끌어 내는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었다.

예로 11세기부터 전해 내려온 예배무용인 ‘미로춤’을 살펴보자. 순례자의 길을 행렬로 표현한 이 춤은

37) 박영애(2006), p.8.

38) 앞의 책, p.290.

39) 김명숙(2015), 종교의식의 의식무용화 작업에 관한 연구: 육법공양(六法供養)을 중심으로, 『무용예술학연구』 56, p.28.

40) 앞의 책, p.289.

41) 김수진 등(2015), p.31.

42) 홍덕선 등(2009), p.258.

중세사의 수도원과 성당 건물을 생각해 볼 필요성도 함께 제시한다. 중세 시대에 건축된 수도원과 교회
 는 미궁과 같은 불규칙한 건축 형식을 많이 볼 수 있는데 이는 수도원에서 살아가는 수도원들의 생활이
 미궁을 통하여 순례자의 길이며 천상의 길로 향하는 비가시적 수행을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효과
 를 주었을 것이다. 이를 통하여 무용 행위는 무대와 통합되며 교회 그 자체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처럼 무용의 역할은 내면의 감정을 몸을 통하여 외부로 표출하는 것이 아닌, 몸으로 경험하는 신의 교
 리였으며 예배무용은 인간의 몸이라는 질료와 내세와 완벽한 비례라는 형상의 결합아래 신에게 바치는
 형이상학적 가치였다. 하지만 결국 형이상학적 가치 위에 유기체의 미학이라는 인간정신의 존재와 본질
 이 있었기에 감각적 대상인 신을 인간 스스로에게서 무용을 통하여 나타내려 했을 뿐만 아니라 상징하
 는 대상을 비가시적 실재로부터 현재로 이끌어내는 결과도 보였다.⁴³⁾

중세인들이 엄격하게 지키려 했던 육체와 영혼의 분리, 정신과 감각을 대립시키는 사도 바울의 개념
 에서 영혼만이 선(善)을 추구⁴⁴⁾할 수 있다는 믿음 때문에 무용은 죄를 가진 육체로 행하지만 육체는 행
 위의 재료일 뿐 그 목적이 육체가 아닌 내세를 위한 영혼 구원을 위한 정신의 행위이며, 이를 현세에 재
 현하는 수단이었다. 교회에서 이단적이며 변질되었다는 이유로 무용을 금지하였으나, 근본적 움직임과
 형태에 기반 하여 의미를 부여한 몇 가지만의 무용을 허용하는 양방향적인 모습을 취하는 것도,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한 신체를 근원으로 하여 믿음의 목적만을 신체로 표현하였기에 ‘예배무용’이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이다. 이처럼 예배무용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신앙의 통로였으며 인격적 체
 험을 통하여 내적인 변화와 치유가 이루어”⁴⁵⁾지는 효과가 있었다. 기호학과 내세적이라는 기독교 신학
 의 미학적 특징을 바탕으로 예배무용으로 재현 된 거룩한 지혜는 진정한 인간의 행복을 지향하는 기독
 교 정신의 실현이라 할 수 있었다.

V. 결 론

현대의 예술과 중세의 예술은 유사한 면이 많다. 현대예술은 비가시적인 것을 가시화 시켰고 형태의
 단순화 통해 대중화를 유도했으며 중세예술도 유비적(類比的)확장을 통하여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을
 현세에 재현하려 하였다. 중세사에서 나타나는 예술의 기능이 내세와 현세의 매개였다면 현재의 예술
 또한 대중과 예술가를 연결하는 기능을 가진다. 무용예술도 마찬가지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천
 년 중세사에서 미학적 특징을 통하여 예배무용을 살펴보고 무용예술의 발전방향을 찾아야 만 한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 중세 시대의 사회 현상에 따른 기독교 신학적 미학의 특징으로 분석한 기독
 교 예배무용의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독교의 통제 아래서 무용예술이 국가적으로 탄압을 받았던 중세시대에는 교회 안에서 이루
 어지던 ‘예배무용만이 인정을 받으며 명맥을 유지할 수 있었다.

예배무용의 궁극적 목표는 하나님과의 소통을 위한 몸으로 드리는 기도였으며 교리 전파의 수단이었

43) W. 타타르키비츠(1970), p.517.

44) S. Walter(1986), 『서양무용사상사』, 신길수 (역)(서울: 예전사,1999), p.26.

45) 최경희, 박영애(2016), 기독교 무용 지도자 양성의 현황 및 개선 방향, 『무용예술학연구』 62, p.76.

다. 중세 시대에는 무용이 초기 기독교 예배에 포함되고 사제가 직접 집도하는 종교의식의 필수 요소였으나,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인간이 행하는 행위라는 이유로 탄압과 제재가 이루어지기도 했다. 하지만 교회의 교리에 따라 진행된 절제된 몸짓과 동작의 전개는 말씀의 전달 수단으로써 글을 읽을 줄 모르는 이들에게 교회의 교리를 몸으로 수행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었기 때문에 예배무용만이 중세사에서 명맥을 유지하였고, 이는 몸으로 직접 수행하는 신의 섭리로 나타날 수 있었다. 이러한 신의 섭리를 통하여 예배무용은 기독교 신학적 미학의 특징인 기호학과 내세적 지향의 소망이 결합하여 나타난 하나의 종교의식이며, 인간의 몸으로 하나님의 천국을 재현하는 방법이었다.

둘째, 중세사의 예배무용은 기호학을 통하여 철저하게 제작적인 비례로 집도되었다.

중세사에서 기호학은 종교의식에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였으며 불안정한 현세를 완벽한 내세의 형상으로 재현하기 위한 최적의 이론이었다. 기호학은 기호으로써 언어, 즉 소통의 수단이다. 예배무용은 몸으로 표현하는 인간과 신의 소통의 수단이며, 인간들 사이에서 교리 전파를 위한 소통의 수단이기도 하였다.

특히 예배무용의 구도가 원무, 나선형과 같은 곡선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은 기호학의 최상위 도형인 원을 통하여 기독교의 최상위인 하나님을 나타낸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예배무용을 통하여 순례자의 행보를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수행이기도 하였으며 기호학을 통하여 무용이 제작적인 비례로 완성되면서 현세의 불안정한 인간의 형태를 가장 안정적 비례로 완성할 수 있었고, 이는 인간의 몸으로 재현할 수 있는 근원과 근본을 위한 형상이 될 수 있었다.

셋째, 중세사의 예배무용은 인간들의 내세적 지향점을 몸으로 재현한 가시화된 행위였다.

중세인들에게 가장 큰 소망은 천국에서의 영원한 생명과 평안이었다. 하지만 인간은 본능적으로 항상 죄를 지었고 그들은 교회에서 회개하며 죄를 용서받았다. 교회는 금욕과 절제의 공간이었으나 죄를 회개하려고 온 인간들에게 신의 성스러움을 체험시키기 위하여 화려하고 좋은 재료로 교회를 장식하는 이중성을 취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그 화려한 장식에서 나오는 빛은 인간들을 감동시켰고, 이는 빛으로 다스리는 초월의 결과이기도 하였다. 이처럼 무용 또한 인간의 신체로 초월의 결과를 나타내려 하였다.

현세의 인간의 신체는 내외적으로 불안정하기 때문에 ‘성호 긋기, 무릎 꿇기, 엎드리기’의 간단한 몸짓만이 무용의 동작이 되었으나, 인간이 가진 본능을 절제하는 과정으로 존경과 경배 그리고 기원의 의미를 충분히 완성할 수 있었다. 이러한 행위는 신의 교리와, 초월적인 내세의 비가시적 정신을 몸으로 재현하여 가시적 형상으로 이끌어 낼 수 있었으며 결국 예배무용은 중세사의 혼란 속에서 인간의 신체를 통하여 신 앞에 스스로 교회될 수 있는 존재 자체로 인문주의의 시발점이 된 유기체의 미학까지 실현시킬 수 있었다.

암흑시대라 불리던 중세 시대는 중세후기에 이르러 유럽 역사상 가장 높은 생산력과 창조력이 발휘되었다. 오늘날 파리와 런던 같은 유럽의 대도시들이 중세 시대에 형성되었고 중세후기 또한 눈부신 발전을 보이며 문화예술의 황금기인 르네상스 시대로 이끌었다. 문명의 시작과 끝은 결국 정체기를 기준으로 한다. 오늘날 무용예술의 문제점인 대중과의 소통 부재, 무용수들이 받는 열악한 처우와 같은 문제들은 중세사에서 이루어지던 무용의 탄압과 같이 현대 무용예술의 정체기를 만든다. 중세사의 예배무용이 기호학의 원리를 원용하여 근원과 초월적 내세를 지향한 신과의 소통을 위한 기도의 형태로 표출되었던 것처럼 현대의 무용예술에서도 안정과 균형 그리고 대중과의 소통을 위한 올바른 의미 구현이 필요하다.

이처럼 현재에 끊임없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 중세사 연구가 현대 무용예술의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구심점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기대한다.

■ 참고문헌

- 이택광(2008). 『중세의 가을에서 거닐다』. 파주: 아트북스.
- 진중권(2014). 『미학오디세이 I』. 서울: ㈜휴머니스트 출판그룹.
- 한국철학사상연구회(1989). 『철학대사전』. 서울: 도서출판 동녘.
- 홍덕선, 박규현(2009). 『몸과 문화』. 서울: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 뒤비, G.(1999). 『중세의 예술과 사회』. 김웅권(역). 서울: 東文選. 2005.
- 빌라데서, R.(1999). 『신학적 미학』. 손호현(역).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2001.
- 소렐, W.(1986). 『서양무용사상사』. 신길수(역). 서울: 예전사. 1999.
- 타타르키비츠, W.(1970). 『미학사 2』. 손효주(역). 서울: 미술문화. 2005.
- 프뤼도모, G.(1990). 『무용의 역사 I』. 양선희(역). 서울: 삼신각. 1995.
- 川野洋(1992). 『예술·기호·정보』. 진중권(역). 서울: 증원문화. 2010.
- 김명숙(2015). 종교의식의 의식무용화 작업에 관한 연구: 육법공양(六法供養)을 중심으로. 『한국무용예술학회』, 56: 23-37.
- 김수진, 박순자(2015). 중세 시대의 무용현상을 통한 무용의 발전방향 모색. 『기독교 학문 연구회』, 20: 7-38.
- 박영애(2006). 중세 시대의 교회무용에 관한 연구. 『한국무용기록학회』, 11: 1-23.
- 박희진, 태혜신(2011). 무용 사회학 관점에서 본 중세 시대 무용예술의 의미. 『한국무용 학회지』, 11(2): 25-35.
- 이명주(2005). 기독교무용에 나타난 『죽음의 춤』 과 도상해석학을 통한 의미체계 연구. 세종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미영(2006). 9-13세기 이태리·프랑스와 고려 의식무용 양식 비교연구. 『한국무용예술학회』, 17: 161-199.
- 조찬래(2006). 중세시기 교황절대주의(papal absolutism) 관념에 관한 연구. 『사회과학연구』. 26: 445-464.
- 최경희, 박영애(2016). 기독교 무용 지도자 양성의 현황 및 개선 방향. 『한국무용예술학회』. 61: 73-86.
- 송유레(2013년 04월). 기호학으로 드러낸 기독교 황제의 절대적 神觀. 『신동아』. <<http://shindonga.donga.com/3/all/13/111948/2>, 2017. 6. 18>.
- 황효진(2016년 03월 30일). 지카 바이러스, 수혈로도 감염된다는데... 효과적인 예방책은?. 『동아일보』. <<http://news.donga.com/3/all/20160329/77267647/1>, 2017. 6. 18>.
- Jean-Jacques Annaud(1986). *Le Nom De La Rose, The Name Of The Rose*. Warner Bros. (dvd, 131 minutes).
- 네이버 지식백과. <<http://terms.naver.com/>, 2017. 04. 27>.

논문투고일 2017. 5. 14

심사일 2017. 6. 2

심사완료일 2017. 6. 22

An Analysis of Worship Dance according to the Aesthetic Characteristics of Christian during Western Medieval History

Jeong, Bo-Young* · Park, Soon-Ja**

Doctoral Student in dance, Sookmyung Women's University*

Professor of Dance, Sookmyung Women's University**

The present study analyzes Christian worship dance in terms of Christian theological aesthetic characteristics according to the social phenomena of the Middle Ages.

First, worship dance was a religious ceremony led by priests. Moderate gestures and motions in accordance with doctrine were means of communication of performing the church doctrine to the people through the body. Second, worship dance was based on semiotics. Semiotics took an important role in religious ceremonies as the optimum theory for reproducing afterlife images. This was shown by circles, the supreme figure in semiotics, which expressed God.

Third, worship dance reproduced an afterlife direction through the body. The light of faith was the result of transcendence ruling man. Light inspired man, and the nonvisible mind was reproduced through the body to draw out a visible image. Worship dance allowed man to reform before God through the body.

Keywords: Medieval history (중세사), Medieval aesthetics (중세미학), Christian dance (기독교무용), Worship dance (예배무용), Dance history(무용사)